

덧

오전 열 시, 나는 컴퓨터 전원을 올렸다. 댓글을 올리는 매뉴얼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첫 번째 단계인 진보 신문사 기사를 일별했다.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K 신문사 기사 중에서 ‘야당 대선 후보 공약’이라는 제목을 클릭해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중복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올렸다. 곧이어 여당 대선 후보의 ‘개성공단 폐쇄’와 ‘금강산관광 폐쇄’를 애국으로 추켜세웠다. 그런 다음 스크롤을 내려 기사 아래에 달린 여러 댓글들을 살펴보았다. 비율은 야당 대선 후보를 옹호하는 내용보다 여당 대선 후보를 찬양하는 댓글이 열 배 정도 많았다. 야당 지지자들이 댓글로 스크럼을 짜서 어떻게든 밀고 들어오는 적을 막아 보려고 검은 피를 줄줄 흘리며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갑각류 같은 수십만 명 여당 측 흑기사의 댓글 도배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내 댓글 아래로 흑기사들이 인사말을 달았다. 흑기사들과 나는 협력자 관계였다. 온라인에서 댓글 활동을 하는 우리의 임무는 막바지로 치달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론을 유리하게 돌려놓는 것이었다. 일 년 전부터 시작된 이 전쟁은 드디어 한 달 후면 종료된다. 그때까지 내 성스러운 애국 행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컵라면을 먹으면서 눈으로는 모니터를 쫓았다. 다시 진보 신문사 기사를 일별하다 이번에는 F 신문사 기사 중에서 ‘여당 대선 후보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라는 제목을 발견했다. 기사 아래에는 푸줏간의 고기처럼 댓글이 70만 개나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나는 부랴부랴 라면 건더기를 입안에 쑤셔 넣고 국물까지 깡그리 마신 다음, 본격적으로 댓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내 댓글에 ‘공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여당 대선 후보를 옹호하는 수십만 명의 흑기사가 다수 아이디를 이용해 공감을 몰아준 것이었다.

댓글을 올리다 보면 가끔 수지가 생각났다. 나와 수지는 국문과 캠퍼스 커플이었다. 법대생이 캠퍼스 커플이 되면 나중에 판·검사가 되어 사회지도층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보았지만, 국문과 캠퍼스 커플이 나중에 작가와 시인이 되어 리더의 삶을 사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국문과 캠퍼스 커플인 우리가 하는 일이라곤 고작 문장을 낭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판·검사를 꿈꾸는 법대생 커플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전공은 능력과는 별도로 성향의 문제인 까닭이었다. 나와 수지도 법대생 커플처럼 같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것은 기자가 되어 저널리즘과 국민의 알 권리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나와 수지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커플이 되었지만 구면이었다. 우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때 각종 백일장에서 최고상을 두고 다투던 맞수였다. 백일장에서 내가 한 번 최고상을 받으면 그 다음엔 수지가 최고상을 받는 식으로 우리의 실력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 때문에 나와 수지는 서로 상대방이 백일장에 참가하지 않았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기도 했다. 그렇게 맞수였던 우리가 같은 대학교, 같은 국문과를 전공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책도 볼 수 있는 카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책을 보다가 무료하면 문장을 거뤘다. 국어사전 아무 곳이나 펼쳐서 무작위로 몇 개의 단어를 채집해 그것으로 수필을 완성하곤 했다. 때로는 보통 사람들이 다소 엉뚱하게 여길만한 소재로 시를 짓기도 했다. 언젠가는 ‘엉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를 겨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사람들의 엉덩이를 수많은 보름달이 거리에 나뒹구는 것으로, 수지는 수많은 전구가 거리를 밝히는 것으로 전복적인 발상을 보여주었다. 그렇듯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문학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F 신문사를 빠져나와 이번에는 댓글 매뉴얼 두 번째 단계인 유튜브(Youtube)로 자리를 옮겼다. 오른쪽 카테고리에는 대선과 관련한 동영상도 수십 개가 달려 있었다. 유튜브는 지면 할애가 제한적인 신문 기사와 달리,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담아 유리한 방향으로 세밀하고 방대한 내용을 올릴 수 있어서 파급력이 대단했다. 보통 유튜브 동영상을 조회하는 누리꾼의 숫자가 적을 때는 수십만 명에서, 많을 때는 백만 명을 상회했다. 때문에 유튜브는 여야 지지자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나는 그중에서 가장 조회 숫자가 많은 야당 측 동영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대북 포용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 군 복무 기간 단축 정책 등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내가 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난하자, 그쪽 지지자들이 댓글 칼을 버려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러일으키며 촌철살인으로 대응했다. 적들의 반응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빨랐다. 처음에는 기세등등하던 야당 측 지지자들이 오 분이 지나자 내 촌철살인 앞에서 전전긍긍하다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한 시간이 다 될 무렵에는 마지막으로 가장 끈질기지만, 인문학적 소양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다섯 명의 야당 측 지지자가 진지를 사수하듯 남아서 나에게 육두문자를 쏟아냈다. 그들은 나에게 갖은 욕설을 퍼붓다가 그것이 먹히지 않자, 나중에는 내 부모님까지 끌어들여 육두문자를 대접했다. 그쯤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성을 잃고 덩달아 육두문자를 날릴 법도 하지만, 나는 침착하게 능글능글한 워트로 맞받았다. 그러자 남은 잔당마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누리꾼 사이에서 댓글 싸움을 할 때 단문(短文)은 삼십 초, 장문(長文)이라도 일분을 넘기지 않고 의견 개진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이 불문율을 먼저 깨는 측이 댓글 싸움에서 패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때문에 나는 댓글 전쟁에 돌입하기 전, 미리 밥을 먹어 배를 채운 다음, 소변을 볼 수 있는 세숫대야를 책상 아래에 비치해 두었다. 자칫 한가롭게 밥을 먹거나, 혹은 소변을 보다가 시간을 초과하면 줄행량을 놓았다는 상대방의 생떼와

면벽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치졸하게도 더러 댓글 전사들 중에는 그렇게 승리를 탈취하는 족속도 있었다. 그렇게 내가 잠시 훗한 유튜브 댓글 공란을 응시하고 있는데, 낯선 닉네임의 야당 측 지지자가 “너, 고시원이니? 컵라면 불어 터지겠다. 빨리 처먹어라.” 하고 댓글을 올렸다. 나는 정곡을 찌르는 댓글에 씩씩한 미소를 머금었다.

내가 고시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버지와 계모 때문이었다. 나는 다섯 살 때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여의었다. 계모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셋이나 있어서 나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했다. 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계모의 고자질로 일주일이 멀다하고 아버지에게 매타작을 당했다. 어릴 때 당한 폭력과 학대 때문에 자라서는 집에 정을 붙일 수가 없었다. 나는 전역을 하자마자 옷가지만 챙겨서 집을 나왔다. 갈 곳은 고시원밖에 없었다. 애초 고시원은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공부방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숙식을 해결하면서 점차 주거 공간으로 변한 곳이었다. 이런 소이로 고시원 입실자들의 생활수준은 노숙자 바로 위 단계쯤 되었다. 현재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고시원 방세가 두세 달 밀려 거리로 내쫓기면 바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나는 오 년 동안 여러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입실자가 두세 달 밀린 방세 때문에 쫓겨나는 것을 일곱 번이나 목격했는데, 그때마다 같은 고시원 입실자로서, 거리로 나앉은 그들의 비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비애는 비단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방을 얻으려고 여러 곳을 전전하다 마지막으로 고시원을 찾게 되었는데, 그때 방 크기를 보고 심한 정서적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본래 주택법에는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을 4평(14㎡)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 위치한 대다수 고시원의 방 크기는 0.8~2평에 불과했다. 나쁜 어른들의 극악한 탐욕과 인정사정없는 자본주의는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따윈 안중에도 없었고, 엄연한 불법임에도 방을 여러 개로 쪼개 닭장처럼 만들어 자신들의 뺏속을 채우면 그만이었다. 이 빈곤한 공간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일컫는 인간에 대한 예의나 존중은 고사하고, 사람을 설치류로 치환하는 상황이 공공연하게 자행됐다.

작년 11월 첫째 주 월요일, 자리고비 원장이 내 방문에 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안 된다는 쪽지를 붙여 놓았다. 이곳 고시원 입실자는 60명인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는 일반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부하는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나는 언론사 기자에 적을 둔 취업 준비생이었다. 원장은 일반인은 무시하고, 대학생들에게 맞춰 고시원을 운영했다. 대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일반인은 이직으로 고시원을 옮기는 경우가 잦았지만, 대학생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졸업할 때까지 불박이로 안주하는 까닭이었다. 원장이 내 방문에 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안 된다는 쪽지를 남긴 것도 그 때문이었다. 요즘 아이들은 된장국 냄새를 싫어해서 방치하면 공실(空室)이 발생해 손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나는 원장의 압박에 분노를 느꼈다. 한국 사람이 된장국 냄새를 싫어한다고?

나는 고민에 빠졌다. 고시원을 옮길지연정, 내 입맛에 딱 맞는 구수한 된장국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고시원을 관리하는 총무와 의논한 끝에 설문 조사 용지를

일주일 동안 출입문에 붙여 놓았다. 만약, 입실자 과반수가 된장국 냄새를 싫어하면 고시원을 옮길 생각이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입실자 60명 전원이 된장국을 끓여 먹어도 좋다는 쪽으로 표를 몰아준 것이었다. 총무는 내가 건네준 설문 조사를 들여다보고 “이거 완전히 사회주의적이군.” 하며 원장에게 결과를 전해서 허락을 구하겠다고 했다.

다음 날, 총무가 ‘된장국 불가’라는 원장의 뜻을 전해왔다. 나는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했음에도 여전히 불가를 고집하는 원장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너무 화가 치밀어서 애먼 총무에게 언성을 높이며 분풀이를 했다. 총무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저 원장의 뜻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화풀이 끝으로 퇴실을 각오하고 원장에게 따질까 고민 중인데, 그때 옆방 문이 벌컥 열리면서 노점상 송 씨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이곳 고시원에서 오 년을 살아 전후 사정을 흰히 꿰뚫고 있었다. 나는 잘됐다 싶어서 송 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송 씨가 피식 웃음을 날리며 의외의 말을 했다.

“그것은 아이들이 된장국 냄새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입실자들이 따라서 국을 끓여 먹으면 가스 요금이 폭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애초에 싹을 잘라 버린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전 총무가 고시원을 그만 두면서 그렇게 말합디다.”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송 씨의 말에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원장의 주도면밀한 대응은 단단하게 중무장한 내 논리를 일거에 무장 해제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좋기로써니,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싶었다. 방법이 없었다. 원장의 요구에 내가 순순히 따르든가, 아니면 내가 당장 퇴실하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할 판이었다. 매일 정해진 분량에 맞춰 댓글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고시원을 알아보는 것도, 이삿짐을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원장의 뜻에 따르겠노라고 총무에게 화답했다. 생각하기로 된장국은 마트에서 팩으로 파는 것을 사다가 데워 먹으면 될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된장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더는 원장이 나에게 압박을 가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안위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원장은 여러 각도에서 나를 압박했다.

원장의 두 번째 압박은 불시 단속이었다. 작년 12월 둘째 주 월요일, 자정에 누가 방문을 노크했다. 내가 방문을 열자, 원장이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서서 손바닥으로 침대를 더듬었다. 그는 침대보까지 들춰서 꼼꼼하게 살펴본 후, 고개를 돌려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즉시 퇴실이라고 나에게 엄포를 놓았다. 복도에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총무의 양손에는 입실자들에게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전기히터와 전기장판이 들려져 있었다. 원장은 수은주가 영하 15℃로 곤두박질치는 기온에도 보일러 지침을 ‘외출’ 모드에 고정해 놓아서 실내 온도가 바깥 온도와 불과 7℃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기거하는 지하방조차도 귀가 시려 털모자를 쓴 채로 지내야 할 형편이었다. 물론, 나는 고시원에서 화재 예방 차원으로 각종 전열기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상적으로 난방을 하면서 전열기구 사용을 단속해야지, 정작 보일러는 외출 모드에 고정해 놓고 궁여지책으로 전기히터와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달래려고 하는 입실자들에게 언필칭

화재 예방을 강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입실자들이 군인도 아닌데, 자정에 군대 내무 사열하듯 불시에 방을 점검하는 것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임계점을 넘는 원장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럴잖아도 원장과 불편한 상황인데, 굳이 머릿속 냄비에 신경을 넣고 끓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한 발짝 양보한 것으로 일주일만 잠잠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작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 원장의 세 번째 압박이 들어왔다. 이번 압박은 입실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총무는 원장의 전언이라며 앞으로 밥과 김치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다른 고시원은 한 달에 쌀 20kg을 소비하는데, 우리 고시원은 일주일에 쌀 20kg을 먹는다는 것이었다. 삶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가는 말이었다. 인근 ‘현대고시원’ 총무의 말에 따르면, 자기네는 입실자 59명이 일주일에 쌀 40kg을 소비한다고 했다. 보통 먹성 좋은 대학생이 한 끼에 종이컵 하나 분량인 쌀 160g을 먹는다. 이 기초 자료를 가지고 현대고시원의 상황으로 대입하여 하루 3끼, 입실자 59명, 7일(일주일)로 곱하면 198k 240g의 쌀을 소비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술적인 계산이고, 실제로는 입실자들이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라면, 피자, 치킨, 짜장면, 떡볶이 등 외부 음식을 먹는 관계로 쌀 소비는 대략 40kg 정도 된다. 이런 상황과 견주면 이곳 고시원 입실자 60명이 일주일에 쌀 20kg을 소비하는 것은 현대고시원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셈이었다. 그런데 원장은 그것마저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같은 주 수요일부터 일체의 개인 밥그릇 대신,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용기(容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밥그릇은 아이의 조막손처럼 작아서 세 번은 퍼먹어야 간신히 위장에 기별이 왔다. 언젠가는 밥을 그릇에 퍼담고 있는데, CCTV로 주방을 감시하고 있던 총무가 득달같이 내려와 한 공기만 먹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치도 매끼 열 조각으로 한정했다. 다음 날, 총무는 그 내용을 주방 게시판에 붙여 놓았다. 그러자 입실자들이 분노했다. 내 앞에서 있던 한 입실자는 이제부터 고시원 사료를 안 먹겠다고 자조 섞인 말을 내뱉는가 하면, 그 옆에 서 있던 다른 입실자는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쌀과 김치를 보내 달라고 해야겠다며 피식 웃었다. 내 곁에 서 있던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단체로 고시원을 옮기자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럴듯 고시원 입실자는 그 누구도 원장의 강압적인 행위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원장의 지나친 이기심에 경악했다. 아무리 이익을 남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요, 속성이라고는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밥과 김치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인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입실자를 가축으로 격하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강경파 학생 열 명과 문제를 의논했다. 총대는 내가 메기로 했다. 우리는 요구 사항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 후, 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한 시간 후 원장이 헬레벌떡 달려왔다. 내가 입실자들의 요구 사항이 적힌 용지를 내밀자, 원장이 부릅뜬 눈으로 내용을 쓱 훑어보더니 이내 그것을 낚아채 휴지통에 처박으며 언성을 높였다.

“누가 주동한 겁니까? 누가 댔든 함부로 선동하지 마세요!”

내가 한 걸음 원장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다.

“선동이 아니라, 고시원 방세에 밥과 김치를 제공하는 조건이 포함된 것인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사기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대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말에 원장이 코뿔소처럼 콧김을 내뿜으며 비아냥거렸다.

“고시원에서 사는 주제에 무슨 사람대접까지 바라시나.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라 레밍이야, 레밍. 그리고 당신들에게만 사람대접을 하고, 내 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대접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소. 이곳 주인은 나요.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난다고, 불만 있으면 퇴실하세요. 당신들 아니어도 내 고시원에 입실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나와 학생들은 원장의 강경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원장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는 기색이 있으면 타협이라도 할 텐데, 도무지 그런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유튜브에서 한창 댓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흑기사 댓글 아르바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무장은 여당 대선 후보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 동영상에 방금 유튜브에 뒀다면서 빨리 막아 달라고 했다. 나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동영상을 검색했다. 찾아서 내용을 살펴보니 심각했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대형 악재가 터지고 말았다. 검찰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에도 연루자가 여당 대선 후보라 관망하는 태도였다.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여론이었다. 자칫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악재가 대선에서 낙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대선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세 가지 큰 악재가 있었는데, 첫째는 병역 면제 의혹, 둘째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 셋째는 성폭행 의혹이었다. 국민 사이에서 병역 면제 의혹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후보는 대통령으로 추대할 수 없다는 정서가 깔려 있었고,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권력을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불신이 작용했다. 그리고 성폭행 의혹은 후보가 약한 여자를 상대로 위력과 위계를 동원해 욕심을 채운 것처럼,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철권통치를 할 수 있다는 불안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나는 서둘러 댓글 칼을 버려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 칼춤에 야당 측 지지자들이 혼비백산 줄행랑을 놓았다. 그 틈을 타 수십만 명 흑기사가 야당 대선 후보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댓글로 도배했다. 분명히 유튜브 동영상은 여당 대선 후보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아래에 달린 여론은 야당 대선 후보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기정사실로 하고 성토하는 양태를 자아냈다. 그렇게 여론을 여당 쪽으로 유리하게 돌려놓자, 사무장이 수고했다며 ‘화려한 휴가’를 주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화려한 휴가란, 사무장이 지급하는 댓글 아르바이트 급료를 일컫는 은어였다. 나는 화려한 휴가 장소와 시간을 확인했다.

원장이 불만 있으면 퇴실하라고 배짱을 뽐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예술대학교 인근을 통틀어 이곳 고시원 방세가 35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다른 고시원에서 방세를

45만 원~60만 원 받는 것을 감안하면, 이곳이 대략 10만 원~25만 원 정도 저렴한 셈이었다. 이 저렴한 값을 한 달로만 따지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계산하면 말이 달라졌다. 만약, 한 달에 10만 원~25만 원을 더 부담한다고 치면 1년에 120만 원~300만 원이 지출되고, 대학을 다니는 4년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480만 원~1200만 원의 생돈이 날아가는 셈이 되었다. 때문에 이곳 입실자들은, 특히 한 푼이 아쉬운 대학생들은 원장의 불합리한 대우에도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신입기가 되면 남은 공실은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로 만실(滿室)을 이루었다.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원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었다. 말문이 탁 막혔다. 모처럼 입실자들이 의기투합해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참고 지내왔던 불합리한 대우를 원장에게 개선해 달라고 주문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만 의지가 꺾이고 말았다. 원장과 내 설전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각자 알아서 자신의 방으로 슬금슬금 흩어졌다. 그것을 본 원장이 특의에 찬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내일 퇴실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날, 나는 짐을 싸지 않았다. 대신 총무에게 퇴실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 없었다. 원장도 그것을 아는지 며칠 동안 잠잠했다. 나는 정체된 평화 속에서 일말의 불안을 감지했지만, 나름으로 원장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려니 생각했다. 그리고 잠시 우체국에 들러 우편물을 발송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는데, 방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나는 당장 총무실에 앉아 있는 원장에게 항의했다. 원장은 내일 퇴실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방문을 열어 주겠다고 했다. 나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원장에게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방문을 열라고 요구했고, 그는 할 수 없이 내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유튜브에 이어서 이번에는 댓글 매뉴얼 세 번째 단계인 ‘오늘의 실화’로 쳐들어갔다. 오늘의 실화는 좌파 커뮤니티로, 야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집결하는 본거지였다. 내가 여당 대선 후보의 대북 강경 정책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자, 눈에 익은 닉네임 ‘자주통일’이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댓글을 달았다. 반가웠다. 비록 자주통일이 나에게서 적이었지만, 내가 유일하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누리꾼이었다. 그는 다른 누리꾼처럼 욕두문자를 날리지 않고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 자주통일이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나도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내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우정이 싹텄다. 우리의 기이한 인연은 내가 흑기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맺어졌다.

일 년 전, 나는 포털 사이트 독서 모임 카페지기로부터 술 한잔하자는 메일을 받았다. 독서 모임 카페에서 일 년 정도 활동하고 있을 때였다. 카페지기는 술을 마시면서 대뜸 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물음에 내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가 여당 대선 후보 지지 모임의 사무장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카페지기는 그 자리에서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을 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신문 기사에 하루 댓글을 백 개 달면 한 달에 백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카페에 게

재한 도서 서평을 보고 글 솜씨가 뛰어나 특별히 스카우트 하는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나는 카페지기가 나를 추켜세워 준 것도 기분이 좋았지만, 그보다 더욱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었다. 요약하여 애국이라는 뜻인데, 나는 그 말에 어떤 거부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묘한 힘이 작용했다. 게다가 카페지기는 댓글을 올리는 애국적인 결사에 국가 정보기관과 군대 정보기관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나는 그 엄청난 사실에 감동을 받아 앞뒤 가리지 않고 카페지기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흑기사가 되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댓글 아르바이트는 재미있었다. 생물학적 주먹이 아닌, 순전히 인문학의 문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은 짜릿함 그 자체였다. 나는 문장 한 줄을 올려도 한글 맞춤법을 충실히 따랐다. 그러나 야당 측 지지자들은 한글 맞춤법 따위는 개의치 않았다. 게다가 글은 소통인 동시에 정서의 변용인데, 논리는커녕 아무 생각 없이 조악한 구어체를 키보드로 옮기는 수준이었다. 또한 황용 문장은 누구에게나 인간적 감성에 소구되는 것으로, 어떤 사회적 쟁점을 다양하고 적절한 단어 조합을 통해 내적 동력을 미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지만, 야당 측 지지자들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처참하게도 댓글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환유법과 제유법, 대구법, 역설법, 중의법, 냉조(冷嘲)법 등의 사용은 둘째치고라도, 어순을 도치시켜 문장을 강조하는 방법도 구사할 줄 몰랐다. 좀 더 두고 본 바로 ‘-이예요’는 받침 있는 단어 뒤에 붙여 쓰고, ‘-예요’는 받침 없는 단어 뒤에 붙여 쓰는 것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아무리 적이라지만 한숨이 절로 터져 나왔다. 반면에 나는 단어 하나가 잘 놓이면 문장 전체가 살고, 단어 하나가 잘 못 놓이면 문장 전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까닭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댓글을 올렸다. 이런 내 관점에서 볼 때, 야당 측 지지자들은 하나같이 기본기조차 갖춰지지 않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열 명 중에서 다섯 명은 내가 자신의 비문(非文)을 지적하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그것은 야당 측 지지자들이 나처럼 국문과를 전공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올리는 집단이 아닌, 어디까지나 순수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했다.

경찰까지 동원된 방문 비밀번호 사건 후, 나와 원장은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끝처럼 휴전했다. 휴전하는 동안 나는 내내 배앓이를 했다. 처음에는 원장과의 다툼으로 장(腸)이 예민해진 탓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밤 열 시에 저녁밥을 먹고 다섯 시간 후면 죽죽 설사를 했다. 이상했다. 외부 음식을 먹었다면 그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 적이 없이 오로지 고시원 밥만 먹었음에도 그랬다. 배탈은 사흘이나 계속됐다. 그러던 와중에 총무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다. 총무가 낮에 공용 화장실에서 나오다 나와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컵이 든 손을 등 뒤로 감췄다. 그의 손에 찻술이 들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치를 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총무를 무심히 지나쳤다. 그리고 그날, 나는 밤 열 시에 밥그릇을 들고 주방 안으로 들어섰는데, 총무가 컵을 거꾸로 뒤집

어 밥솥 안에 물을 보충하다가 나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그는 황급히 밥솥 뚜껑을 닫고 나를 스쳐 주방을 나갔다. 총무가 사라진 후, 나는 밥솥을 열어 보았다. 밥솥 안에는 밥이 있었다. 주걱으로 밥알을 떠서 씹어 보았는데 마침맞게 잘됐다. 대개 밥솥에 물을 보충하는 경우는 쌀을 안칠 때 밥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밥이 설익었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총무는 잘된 밥에 물을 보충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한 가지 경악스러운 가정을 추출했다. 그러니까 총무는 내가 밤 열 시에 저녁밥 먹는 것을 알고 그 시각에 맞춰 밥솥에 번기 물을 투입한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총무의 개인 의지가 아니라, 원장의 사주를 받았을 터였다.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방전됐다. 내 귓속으로 “이건 몰랐지, 요놈아!” 하고 낄낄거리는 원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환청으로 들렸다. 나는 너무나 경악스러운 상황 앞에서 밥을 퍼담을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마을 어귀의 장승처럼 우뚝 서 있었다. 하루아침에 내가 밥을 먹는 인간에서, 똥을 먹는 개로 치환된 것처럼 아주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앞서 총무가 번기 물을 투입했을 것이라는 경악스러운 내 가정은 다음 날, 아홉 명의 입실자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나는 그 결론을 곧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원장이 돈에 집착하기는 해도,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갖는 욕심으로서, 극악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 설령 극악하게 돈을 밝힌다고 해도, 인간의 탈을 쓰고 같은 인간에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내 자신을 다독거렸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럼, 왜 총무는 공용 화장실에서 컵을 등 뒤로 감춰나? 왜 총무는 밥솥에 물을 보충하다가 내가 들어서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나? 왜 저녁밥을 먹은 아홉 명의 입실자가 다음 날 복통을 호소했나? 왜 나는 사흘이나 배탈이 났나? 나는 그런 의구심을 머릿속에서 굴렁쇠처럼 굴리며 빈 밥그릇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원장의 교활한 퇴실 수작에도 나는 굴복하지 않았다. 단지 사람대접을 해 달라는 소박한 요구로 하루아침에 퇴출 대상으로 내몰리긴 했지만, 나는 고시원을 퇴실하거나, 원장과 타협하지 않았다. 대신 전략을 바꿔 내 삼시세끼를 입실자들이 다수 이용하는 시간대로 변경했다. 설마 아무리 내가 밍기로서니, 원장이 입실자 전체를 상대로 해코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것이 주효했는지 더는 밥을 먹고 배탈이 발생하는 불상사는 없었다. 다만, 이후로 원장이 이따금 고시원을 방문해 내 눈치를 살필 때는 또 무슨 흥계를 꾸미는 전초인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다.

원장의 네 번째 압박은 작년 12월 26일에 자행됐다. 이번 압박의 제목은 ‘샤워 금지’였다. 원장은 가스 요금이 사십만 원이나 된다면, 샤워를 하게 되면 보일러가 계속 온수를 데워 요금 폭탄이 온다고 고시원 복도에 서서 왜장쳤다. 그러자 막노동꾼 김 씨가 방문을 열고 자신은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하지 않으면 찻집해서 잠을 못 잔다고 봐 달라고 했다. 그러자 옆방 문이 열리며 중국집 배달원 이 씨가 고개를 내밀고 자신도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를 해야 한다고 읊소했다. 그렇게 중국집 배달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반대편 방문이 열리며 택배 배달원 최 씨가 일을 끝마치고 샤워를 하지 않으면 땀 냄새

가 나서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원장이 세 사람에게 내일 당장 방을 빼라고 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초원의 유목민처럼 묵묵히 짐을 꾸려서 고시원을 떠났다. 나는 세 사람이 고시원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원장의 다섯 번째 압박은 작년 12월 28일에 자행됐다. 이번 압박의 제목은 ‘전기 요금 절약’이었다. 원장은 전기 요금이 삼십만 원이나 된다면 고시원 복도에 서서 고래고래 목청을 돋우었다. 아마도 원장은 입실자 중 누군가가 몰래 전열 기구를 사용해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원장의 트집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 트집에 누구 한 명 나서서 항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밤새워 운전하고 피곤에 절어 잠을 청하던 대리 기사 윤 씨가 참다못해 방문을 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전기세가 삼십만 원 나왔으면 적은 거예요. 원룸에서 한 사람이 생활해도 이만 원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계산하면 입실자가 육십 명이니까, 백이십만 원이 나와도 정상이죠.”

그러자 원장이 대리 기사 윤 씨에게 중뿔나게 나서지 말고, 잠이나 자라며 일거에 말을 잘랐다. 하긴, 원장에게 이곳 입실자들은 101호 시공취, 102호 시공취, 103호 시공취……하는 식으로 각 방마다 35만 원짜리 바코드가 찍혀 있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장이 고래고래 왜장치면서도 정작 전기를 차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깨소금 같은 이유가 있었다. 한 번은 원장이 작년 여름에 매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여섯 시까지 전기를 차단한 적이 있었다. 공용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를 아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자 한 입실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을 올렸고, 방송 기사가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고시원으로 들이닥쳤다. 다행히 방송 취재는 무위로 돌아갔지만, 원장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이후로 원장이 전기를 차단하는 일은 없었다.

내가 오늘의 실화에서 댓글을 올리기 시작하자, 야당 측 지지자들이 육두문자를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면서 뒤따라왔다.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라 별반 감정이 치밀지 않았다. 어느새 내 심장은 말초적인 육두문자에 반응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나쁜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는 야당 측 지지자들이 나에게 육두문자를 뱉어도 별반 분노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끈끈이주걱 같은 야당 측 지지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이라면 고민이었다. 댓글 싸움은 내가 100을 얻으면 상대가 100을 잃고, 상대가 100을 얻으면 내가 100을 잃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이 요구되었다. 그렇게 내가 한창 오늘의 실화에서 야당 측 지지자들과 댓글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수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녁 일곱 시에 파라다이스에서 기다릴게요.”

벽시계는 오후 여섯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수지와 통화를 끝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지만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지난 오 년 동안 이력서를 들고 쉰 곳이 넘는 방송사와 신문사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언론사

입사시험을 언론포고시로 칭할 만큼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학창 시절에 각종 문예대회에서 받은 수많은 상장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이제는 푸릇푸릇한 열정도, 이상도, 희망도 모두 누렇게 변색됐다. 내 나이 벌써 서른 살, 수지는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그만 수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후려칠 뿐이었다. 그러나 진정 내 마음은 수지와 헤어져서 ‘그녀’라는 3인칭 단수로 지칭하기보다는, 결혼해서 ‘당신’이라는 2인칭 단수로, 더 나아가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호명하고 싶었다.

고시원을 나섰다. 약속 장소에는 수지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수지가 선물이라며 커다란 종이 가방을 내게 내밀었다. 내용물은 고급 패딩 점퍼였다. 나는 수지의 선물에 별척 언성을 높였다.

“누가 이딴 거 사 달랬어. 네 옷이나 신경 써. 방송 기자 옷이 그게 뭐냐?”

내 짜증에 수지가 울상을 지었다. 그런 수지의 표정에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 원장에게 댄통 당하고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고시원을 옮기지 못하는 현실에서, 덩달아 수지마저 나를 동정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었다. 나는 못한 짜증을 달래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저녁밥을 먹고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나와 길을 걷기 시작했다. 수지가 갑자기 내 점퍼 호주머니 안으로 원가를 쓱 집어넣었다.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자 수지가 볼멘 표정을 지으며 돈 봉투를 거뒀다. 그리고 이내 팔짱을 끼며 명랑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오늘 스테이크는 고기가 야들야들한 게 참 맛있었어. 민호 씨는 어땠어요?”

나는 수지의 물음에도 대꾸 없이 계속 걷기만 했다. 그러자 수지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려세워 자신과 마주 보게 했다.

“왜 그래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수지를 외면했다. 그러자 수지가 양손으로 내 얼굴을 부여잡고 자신의 얼굴을 마주 보게 했다. 나는 내 얼굴을 감싼 수지의 양손을 잡아 아래로 내려뜨리며 폭탄선언을 했다.

“우리 그만 헤어져.”

내 폭탄선언에 수지가 입을 벌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이어서 수지가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요, 우리 헤어져요. 여자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걸핏하면 헤어지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남자, 이젠 나도 지겨워요. 무슨 사랑이 그렇게 가벼워요? 사랑이 무슨 바람에 휘날리는 개털이에요, 개털이냐고요!”

나는 감정을 도발하는 수지의 항변에 이를 악물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랑이 뭐예요. 능력 있는 한쪽이 능력 없는 한쪽을 먹여 살리는 게 사랑 아녜요? 내가 회사를 다녀서 사랑하는 민호 씨를 먹여 살리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안 돼요? 민호 씨가

직장을 잡을 때까지 내가 먹여 살리면 안 되느냐고요!”

나는 참다못해 버럭 고향을 내질렀다.

“그래, 안돼! 어떤 덜 떨어진 놈이 여자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또박또박 받아 처먹으면서 산다든?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못해. 아니, 안 해! 그러니까 너는 네 갈 길로 가!”

나는 그렇게 막말을 토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방 안으로 들어서서 불도 켜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휴대폰으로 문자가 들어왔다. ‘나, 절대로 민호 씨와 못 헤어져요. 우리가 사귄 게 십일 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다. 나는 해프닝 끝으로 수지가 영락없는 내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수지의 사랑을 확인한 나는 기쁨을 불꽃놀이처럼 하늘로 펄펄 쏘아 올렸다.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전원을 올렸다. 그리고 댓글 매뉴얼 네 번째 단계인 포털 사이트 카페를 일별했다. 나는 맨 먼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카페로 들어갔다. 이곳 카페지기는 미국 이민자였다. 현재는 미국 시애틀에서 집배원 일을 하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KBC 방송 기자였다. 그는 오랜 방송 기자 생활로 다져진 문체(文體)로 진보 성향의 언론사에 종종 정치와 경제 칼럼을 게재하곤 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절창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도 여간 끌려오는 상대가 아니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 문학적 논리로 치면 어느 정도 대등하게 어필할 수 있었지만, 그가 실물 경제 지표 분석과 경제 성장 전망, 아파트 가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 문제를 들고 나오면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때문에 이곳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카페는 내가 가장 방문하기 싫어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은 카페 카테고리에 불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인장이 부재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는 능구렁이처럼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카페를 슬그머니 빠져나왔다.

수지와 한바탕 이별 해프닝을 겪으면서 사랑을 재차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상황이 낙관적인 것은 아니었다. 만약, 수지가 방송사 기자가 아니었더라면, 아니 국문과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사이는 진작 파토가 났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저널리즘으로 무장한 기자 정신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심도 깊은 천착이 지난 시절 몇 번의 힘든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가장 큰 고비는 수지 아버지의 맞선 강요였다. 그때마다 수지는 사랑 없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른 방송사 기자와 사귀는 중이라고 둘러댔다. 수지가 워낙 완강하게 버텼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선 수지 아버지는 장래 사위될 사람이 궁금했는지 얼굴 한번 보자고 했다. 당시 나는 전역 후 삼 년째로, 일주일 간격으로 세 곳의 언론사 면접시험을 마친 상태라 한 곳이라도 합격하면 바로 인사를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전생애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는지 나는 세 군데 모두 불합격했다.

언론사 입사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한 탓에 내가 수지 아버지에게 인사를 가는 것은 무산됐다. 이후로 수지는 아버지의 강권에 매일 시달리고 있었다. 견디다 못한 수지는 아예 사

귀는 남자가 방송 기사를 때려치우고 사법고시 공부를 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나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기실 그녀 아버지의 압박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굳이 수지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장에게 시달린 압박을 대입하면 그 괴로움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 대상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다. 원장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고시원 입실자들을 끊임없이 압박하듯이, 수지 아버지도 자신이 원하는 사위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딸을 압박했을 것이다.

수지 아버지가 벌인 맞선이 얼마나 정략적인가 하는 것은 그녀가 들려준 두 사례를 천착하면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수지가 맞닥뜨린 정략 맞선은 그녀의 아버지 사업과 연관이 있었다. 거제에서 조선소 사업을 하던 수지 아버지는 세미나에서 만나 10년 동안 교류해 온 정부 고위직 인사와 사돈을 맺고 싶어 했다. 사돈만 된다면 조선소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지는 자신의 아버지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때 수지는 그녀 또래의 젊은 남자와 합석했다. 나중에야 수지는 그것이 자신 몰래 아버지가 마련한 맞선 자리였다는 것을 알았다. 식사가 끝난 후, 수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대방 얼굴이 콘크리트처럼 못생겨서 싫다고 했다. 그렇게 비호감인 사람과 어떻게 평생 얼굴을 마주보고 사느냐고 온몸을 부르르 떠는 시늉까지 해보였다.

두 번째로 수지가 맞닥뜨린 정략 맞선은 그녀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었다. 수지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원무과에서는 입원실이 없다고 했다. 수지 아버지는 어디론가 연락을 취했고, 다음 날 수지 어머니는 입원할 수 있었다. 수지는 병원 업무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아리송했지만, 뒤늦게 그것이 아버지 지인 아들 의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수지는 고마움의 표시로 의사와 두 번 만나 밥을 먹었다. 그러나 의사는 두 가지 큰 실수로 수지에게 돌아킬 수 없는 실망을 안겨 주었다.

맨 처음 의사는 자신의 냉정한 심장을 수지에게 자랑했다. 수지는 의사와 저녁밥을 먹고 자가용이 세워진 공용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중간에 지하도 앞에서 무릎 꿇고 구걸하는 노숙자를 보았다. 수지가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노숙자 바구니에 넣었는데, 의사가 그것을 회수했다. 요는 그렇게 동정심을 베풀면 멀쩡한 사람이 게으름뱅이가 되어 평생 빌어먹는다는 논리였다. 수지는 그렇게 말하는 의사에게 우리 사회가 노숙자를 게으름뱅이로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지 자신이 방송 기자 입장에서 체험했을 때, 노숙자는 신체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사회 부적응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단지 외형적으로 멀쩡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게으름뱅이로 내모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설명했지만 의사는 코웃음을 쳤다.

다음으로 의사는 자신의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지에게 보여주고 말았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수지와 의사는 음식점에서 나와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공용 주차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때 의사가 마주 오던 노인과 앞뒤로 스치다 어깨를 부딪쳤다. 그러자 의사가 뒤돌아보며 노인을 불러 세웠다. 노인이 뒤돌아서 의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

지만, 그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감, 앞으로 조심해!”라며 반말을 지껄었다. 수지는 그런 불상농의 의사를 길바닥에 세워둔 채 집으로 총총 돌아오고 말았다.

그리고 수지는 현재에 이르렀다. 이제 수지도 나도 결혼이라는 절대 명제 앞에서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더는 어떤 구실로도 변명을 삼을 수 없었던 수지는 이제 그만 자신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가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무작정 빈손으로 인사를 가는 것이 죽을 맛이였다. 그것은 마치 비무장인 채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을 안겨 주었다. 호랑이가 한 번씩 입을 벌려 나를 위협할 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대항해야 하지만 나에게는 무기 자체가 없었다. 그 상황에서는 결국 내가 호랑이 이빨에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호랑이 이빨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것이 뻔했다. 게다가 호랑이와 먹잇감이라는 일방적인 주종 관계는 내가 수지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계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결혼이 유리처럼 와장창! 하고 깨지고 말 것이였다. 한술 더 보태 더욱 마음에 걸리는 것은, 수지 아버지가 사회적인 지위와 부(富)를 사윗감을 삼는 척도로 생각한다는 사실이였다. 그런 수지 아버지의 가치 판단은 내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을 이끌어갈 전도유망한 기자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 따윈 안중에도 없을 것이라는 예단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고관대작이나 의사, 강남에 빌딩 한두 채 정도 소유한 부잣집에 딸을 시집보내는 것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흡족함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몇 사람이 안 되므로 그만 결혼 문제는 수지와 나에게 말기면 좋으련만, 한사코 수지 아버지는 딸의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여지없이 주도적인 역할을 고수하고 있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빠져나온 나는 이번에는 진보 논객의 카페인 ‘에베레스트’로 잠입했다. 댓글 매뉴얼 네 번째 단계에서 내가 담당하는 카페는 전문가로 분류되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과 이곳 에베레스트 두 곳이였다. 나머지 카페는 다른 흑기사 팀이 맡았다. 나는 에베레스트 카페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 논객의 글에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글을 올리면서 진보 논객이 개입하지 않기만을 바랐다. 자칫 진보 논객이 반론을 제기하면 그것을 재반박하면서 내가 댓글을 끝마치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였다. 내가 그렇게 한창 반박 글을 올리고 있는데, 사무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당 대선 후보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는 양심선언이 포털 사이트 신문 기사로 떴다며 빨리 막아 달라고 했다. 나는 황급히 진보 신문사를 일별했다. 기사가 뜬 곳은 H 신문사였다. 그곳에서는 이미 우리 측 흑기사들과 여당 측 지지자들이 한창 댓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은 조회 숫자가 이미 100만 번을 넘고, 공감이 70만 번을 기록한 것으로도 알 수 있었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내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마치 여야 대선 캠프가 당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서 전면전을 벌이는 양태였다. 게다가 중요한 이슈 때마다 닉네임 ‘폴레랑스’가 출현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그가 예외 없이

댓글 칼을 버려 우리 측 흑기사들과 혈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내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나는 당장 댓글 칼을 버려 야당 측 지지자들을 한 사람씩 베며 앞으로 나아갔다. 내 예리한 댓글 칼에 야당 측 지지자들이 검은 피를 흘리며 하나둘씩 쓰러졌다. 그러나 내 활극은 오래 가지 않았다. 푼레랑스와 조우한 것이었다. 나는 순간 긴장했다. 푼레랑스는 상당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자로서, 나에게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사무장의 말에 따르면, 푼레랑스는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이라고 했다. 내가 그렇게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푼레랑스가 일 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댓글 아래로 시비를 걸어왔다. 나도 일전을 불사했다. 나와 푼레랑스의 댓글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에서 여당 측 흑기사들과 야당 측 지지자들이 팔짱을 낀 채 관전하고 있을 터였다. 나와 푼레랑스의 결투가 다음 댓글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느 한쪽도 승리를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다시금 댓글 칼을 예리하게 버려 푼레랑스를 폭풍처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싸움은 푼레랑스가 더는 댓글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났다. 나는 댓글을 복기했다. 매번 푼레랑스와 댓글 전쟁을 치른 후 느낀 감정이지만, 이번 댓글 싸움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 다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 주고받은 전체 댓글 중에서 푼레랑스의 문장이 540줄, 내 문장이 750줄로 내가 푼레랑스보다 210줄이 더 많다는 것, 그리고 푼레랑스가 더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것으로 내 승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댓글 함량을 결정짓는 문장의 참신성에 있어서는 워낙 막상막하라서 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이번 댓글 싸움은 절반의 승리라는 것이 내 주관적인 평가였다.

나는 댓글 올리는 것을 멈추고 벽시계를 보았다. 화려한 휴가 약속 시간이 삼십 분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서둘러 점퍼를 걸치고 약속 장소인 PC방으로 향했다. 사무장은 정확히 새벽 한 시가 되자 PC방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내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서 들여다보니 백만 원 현금이 한 묶음 들어 있었다. 내가 마뜩찮은 표정을 짓자 사무장이 변명을 늘어놓았다.

“요즘 윗선에서 돈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흑기사 팀은 석 달째 화려한 휴가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쪽은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백만 원이라도 받아 온 겁니다. 대선이 끝나면 모두 지급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무장의 읊소에 나는 껌껌 입맛을 다셨다. 두 달이나 댓글 아르바이트 급료가 밀려 있었지만, 대선 후에 모두 지급하겠다는 사무장의 말을 신뢰하기로 했다.

나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캔 맥주에 치킨을 곁들이면서 자축했다. 비록 절반의 승리이지만, 숙적 푼레랑스를 제압했다는 사실은 어떤 뿌듯함을 안겨 주었다. 푼레랑스를 이김으로써, 마치 글에 관한 한 내가 독보적인 존재인 양 생각되어 자랑스럽기조차 했다. 나는 기쁨에 젖어 캔 맥주를 공중으로 높이 쳐들고 “세종대왕님, 만세!”를 외친 다음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내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처음 댓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애국이라는 명분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흑기

사 활동 기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내 댓글 아르바이트가 애국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자부심과는 정반대로 뭔가 꺼림칙한 양금이 남아 있었다. 그러한 양금은 사무장이 댓글 아르바이트 급료를 전해 주는 방식에서 더욱 증폭됐다. 왜 사무장은 은행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편리한 방법 대신, 나를 직접 만나서 돈을 전해주는 불편한 방법을 선택했을까? 댓글 아르바이트 급료는 누가 내려 보내는 것일까? 사무장이 자주 윗선을 거론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여당 대선 캠프를 말하는 것일까? 혹시 이 댓글 아르바이트 급료가 불법적인 대가가 아닐까? 가만, 내가 하는 댓글 아르바이트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조금 혼란스러웠다. 나는 다음에 사무장을 만나면 이 의구심들을 꼭 확인해 보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다시 컴퓨터 전원을 올리고 마지막 댓글 매뉴얼 다섯 번째 단계인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계정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애초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평상시 온라인상에서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지만, 선거철에는 각 정당이 자신들의 후보를 선전하는 마케팅과 가짜 뉴스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누가 더 적극적으로, 누가 더 적절히 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주도권을 잡으려고 사실보다는 허위를 일삼는 일이 다반사였다. 더욱이 현재처럼 대선 투표일을 고작 한 달 앞둔 상황에서는 참말을 말해도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을 말해도 참말이 되는 ‘에피메니데스(Epimenides)’의 역설이 적용되어 진실을 가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다. 또한 본래 댓글에는 선악미추(善惡美醜)가 존재했지만, 정치 공학에서 바라본 그것은 선악미추가 부재했다. 오직 ‘승리’라는 명분만 있을 뿐이었다. 이 맥락에서 관조하면 댓글을 올리는 주체, 즉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 가사 이면에 존재하는 금수축생(禽獸畜生)은 나를 슬프게 했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내가 촛불 시위를 불법 시위로 폄훼한 이유를 두고서는 사람들의 불편한 질문을 원천적으로 소거하였다. 왜냐하면, 그 물음 다음의 내 답변은 예외 없이 ‘애국’인 까닭이었다. 어쨌든, 내가 그렇게 한창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활용해 가짜 뉴스를 작성하고 있을 때, 수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지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가는 문제는 자신에게 맡겨 달라고 했다.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에 거짓말은 싫다고 했다. 내 단호한 의지에 수지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전략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수지의 답변에 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예로부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지만, 또 부모 이기고 잘된 자식도 없어.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내 말에 수지가 다시 나를 달래듯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민호 씨 의견을 존중해요. 하지만 나도 민호 씨도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은

둘째치고라도 그 삶이 가축과 뭐가 달라요? 민호 씨도 정략결혼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가 맺어주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하는 것이고, 결혼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삶을 꾸리는 거라는 걸 알잖아요. 지금 민호 씨가 힘든 거 알아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의 결혼을 위해서,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요.”

나는 수지의 당부에 대답 대신 할 일이 있다며 통화를 끝마쳤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목을 꼭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혔다.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열었다. 평지와 맞닿아 있는 지하방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찹쌀떡 소리를 묻혀 방 안으로 냉큼 뛰어들었다. 나는 찹쌀떡 외판원의 메마른 외침 끝으로 영하 15℃의 거리 어딘가에서 낡고 해진 옷차림으로 서성거리고 있을 불운한 내 희망을 떠올렸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내가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봄에 찬란하게 꽃망울을 터트릴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이 빈천한 시궁쥐가 고귀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 당당하게 고시원 지하방을 박차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이 무명소졸(無名小卒)이 사회의 목탁이 되어 저널리즘과 국민의 알 권리 소임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이 쫓겨서는 모든 것이 안개에 휩싸인 듯 불투명했다. 이분법으로 대답해 보아도 고시원과 아파트, 시궁쥐와 인간의 아슬아슬한 변곡점에서 바라보는 내 미래는 마치 전원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전광판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사방이 완강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나는 어떻게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지를, 아니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내 자신에게 주지시켰다. 그래, 올해 다시 도전하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다. 나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새벽 세 시에 댓글 싸움을 끝마치고 컴퓨터 전원을 내렸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씻으려고 다용도실로 향했다. 샤워기를 작동하는데, 손바닥에 찬물이 떨어졌다. 원장의 샤워 금지 압박은 겨울이 지날 때까지 계속될 모양이었다. 순간, 욕지기가 치밀면서 도대체 인간의 욕심은 어디가 끝이냐고 자문했다. 나는 할 수 없이 수건에 물을 적서 몸을 닦기 시작했다. 물수건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선뜩선뜩한 기운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피부 표면에 우툴두툴 분화구가 용기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인간적, 이성적, 법률적, 도덕적으로 나쁜 어른들을 증오했다. 내가 지지리도 복이 없어 하필 이런 엇같은 시대에 태어나 그들과 함께 더러운 공기를 나눠 마시는 것이라고 자조했다. 어떻게 씻었는지 기억하기도 싫은 끝으로 이빨이 딱딱 부딪치는 추위를 느끼며 나무토막처럼 뻗뻗해진 몸을 침낭 속에 파묻고 누웠다. 이렇게 혹독한 겨울 한가운데에서 나만 홀로 얼음 왕국으로 유배된 것 같아 짙은 외로움이 엄습했다. 나는 침낭 지퍼를 코까지 끌어올리고 눈만 내놓은 채 머릿속으로 기원문을 조합했다. 현재의 남루한 삶이 내 청춘의 전설이 되는 것을 저어하면서, 혹시 전생에 내가 두고 온 어떤 비방이라도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받아 이렇듯 초라한 삶의 서사가 일거에 끝나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학창시절에 시와 산문

으로 백일장을 평정하고, 이제는 댓글로 온라인의 정치 영역을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그때 위 허접한 명성에 자부심을 갖지 않는 겸손한 혜안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다. 하늘이 보우하사 하루빨리 기자가 되어 사회의 목탁으로서, 저널리즘과 국민의 알 권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구했다. 그렇게 나는 기원문을 읊고 난 후, 나 이외의 타인을 떠올렸다. 참, 그나저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살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묵묵히 삶을 꾸리는 것을 보면 여간 신기한 게 아니었다. 신기한 것은 또 있었다. 바로 고시원 입실자들이었다. 원장의 샤워 금지 압박으로 아침저녁 찬물로 세수하고 머리를 감으면 서도 군소리 없이 생활하는 고시원 입실자들이 나는 여간 신기한 게 아니었다. 나는 그럴 듯 군소리 없이 삶을 꾸리는 세상 사람들과, 군소리 없이 생활하는 고시원 입실자들이 고행의 가시밭길을 걷는 성자(聖者)처럼 느껴져 가슴 한쪽이 싸하게 저려왔다.

오전 열 시, 알람이 울렸다. 잠자리에서 눈을 떴는데, 기분이 몹시 불쾌했다. 악몽 때문이었다. 나는 꿈속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줄행랑을 놓고 있었다. 내 뒤에서는 패트롤카가 사이렌을 울리며 나를 쫓고 있었다. 나는 숲 속으로 접어들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숲 속에서 가시에 얼굴이 활쫓고 옷이 찢어지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뒤에서는 점점 더 가깝게 경찰견의 경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경찰들의 플래시가 어둠 속에 잠긴 숲 속을 희번덕거리며 훑아댔다. 나는 허둥지둥 앞으로 나아가다 그만 무언가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목직한 통증이 발목 쪽에서 전해졌다. 덧이었다. 나는 덧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발목이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왔다. 내가 그렇게 안절부절못하고 있을 때, 경찰견이 나를 발견하고 단번에 덮쳐 왔다. 내 입에서 밤공기를 가르며 단말마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는 악몽을 떨쳐버리듯 심호흡을 하며 책상 앞에 앉았다. 이내 컴퓨터 전원을 올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진보 신문사 기사를 일별했다. K 신문사 기사 중에서 ‘댓글 부대원, 양심선언하다’라는 제목이 눈에 띄어 클릭했다. 기사는 댓글 부대가 여론을 조작한 정황을 석 달 전에 검찰이 포착,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내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JTBD 방송 홈페이지에서 뉴스 동영상을 열었다. 마침 수지가 댓글 부대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잠시 후 수지의 리포팅이 끝나자, 이어서 방송국 카메라가 검찰 청사 앞 포토라인으로 앵글을 바꿨다. 다음 순간, 나는 눈을 의심했다. 포토라인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무장이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의자를 박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KBC 방송 기자가 “댓글 부대를 운영한 것이 사실이나”라고 묻자, 사무장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 답변했다. 뒤이어 MBE 방송 기자가 “정부 예산으로 댓글 부대원의 급료를 지급했느냐.”라고 묻자, 이번에도 사무장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재차 발뻠했다. 다시 SBU 방송 기자가 “중간에서 간부가 급료를 가로채 댓글 부대원의 양심선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이나.”라고 묻자, 사무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갈무리했다.

나는 어지럼증을 느꼈다.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기자들의 취재 소음 끝으로 머릿속에서 수많은 시궁쥐가 짹짹거리며 돌아다니고, 원장의 낱낱거리는 모습이 환영으로 그려졌다. 이어서 수지 아버지의 일그러진 표정과 세종대왕의 부릅뜬 눈이 번갈아 교차됐다. 나는 불길함을 떨치듯 머리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껌처럼 달라붙은 환영을 훌어버리고 다시 모니터로 눈길을 돌렸다. 이윽고 사무장이 답변을 마치고 포토라인을 벗어나기 시작하자, JTBD 수지가 그 뒤를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대가를 받고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몰랐느냐.”라고 질문했다. 나는 그 대목에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내 귓속으로 수천 장의 유리가 와장창! 하고 깨지는 소리가 벼락같이 파고들었다. (끝).